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인민사랑이 펼친 행복의 보금자리들

지금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송진, 송화지구에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가 시간을 다루며 일떠서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려는 공화국의 정신과 기상, 의지와 힘이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로 일어났다는 대격전장... 세상을 둘러보면 부자들을 위한 호화거리는 있어도 평범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이 땅에는 으뜸가는 명당터마다에 이런 현대적인 거리들이 한해맞잡이로 눈부시게 일떠서 보자 홀

룩한 보금자리에 대한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고있다. 지난 10년은 바로 인민의 리상거리,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조국땅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날로 더욱 꽃피어 난 10년이였다.

의 유정한 불빛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것인가. 매일매일 행복과 환희로 충만된 날과 날을 맞고보내는 인민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에 젖어드는 음성이 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우리 인민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다.

소수 특권계층의 변두리에서 전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는것이 오늘 형성이 사는 수십억인류의 삶이지만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는 인민이 무궁한 복락의 한반도에 서 있는것이다. 결코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차려진 복이 아니였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차려진 복이였다. 불행에 당한 사람들을 더

따뜻이 돌보아주는 그 손길은 태풍과 폭우로 집을 잃은 피해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아담하고 번듯한 새집을 지어 주었다. 북부피해지역과 대청리, 강북리... 자연의 광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지만 한 지에 나앉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단 하루도, 단 한명의 인민도 추위에서 떨지 않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기반층에 뿌리박은 나무들... 설레이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옥에는 티가 있을지언정 인민들이 쓰고살 집에는 한점의 티도 없게 하시려는 그의 불같은 진정이 뜨겁게 어렸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고 하시며 삼만산이 그속에서 물리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세 부문제들까지 헤아리시어 하늘길을 달리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너무도 가슴뜨거운 하많은 이야기가 이 거리들에 깃들어 있고 너무도 숭고한 뜻이 새겨져있는 거리의 웅장화려함이나 자연의 풍경과 어울리는 류다른 화폭으로만 안아

볼수 없는 인민의 리상거리들인것이다. 인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가는 거창한 건설대전은 행복향 날에만 있던것이 아니였다. 약성전염병의 전파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과 겹쳐져 자연의 광란도 인민들이 쓰게 될 살림집들을 건설해가는 과감한 행보는 단 한결음도 멈춰세울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태풍과 큰물피해로 집을 잃어 한지에 나앉고 피난을 가는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편적인 사회현실로 되고있는 때에 오직 공화국에서만 자연의 광란이 휩쓸어간 자리에 인민의 지상락원이 펼쳐졌다. 물이 채 되지 않은 수렁길로 이른 새벽부터 직접 차를 몰고가는 대청리에서의 길, 립시방들로 세을 위협한 협곡철길로 인민을 찾아가신

아슬아슬한 검덕으로의 길,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그 위민현신의 길위에 새겨진 자욱들이 주주들이 되어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든든하고 황홀한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섰다. 몇달사이 배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회한하기 그지없는 멧쟁이거리들이 일떠설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간만 천자식을 찾아가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완공된 새 거리와 마을들을 돌아보시였다. 그 모습을 보이며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쏟았고 로동당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그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이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사랑의 풍경인것이다. 그 행복상을 보며 세인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과 복무를 자신의 락으로 여기시는 자애로운 령도자의 품속에 삶의 보금자리를 정하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과 무궁한 미래에 대하여 잘 알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율

인민에게 안겨진 새 살림집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허나 이 나라에서는 1년이나 아침과 저녁이 다른 눈부신 기적과 전변의 리사들이 펼쳐져왔다. 그렇게 백두산아래 삼진시로부터 지도우에 집으로 새겨진 외진 섬소초마을에 이르기까지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전변이 펼쳐졌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새 집, 새 거리들에는 평범한 인민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새집들이의 어깨춤을 들썩이며 삶의 길을 갔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삼지연시와 무도과 장제도에 일떠선 아담한 살림집들... 온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행복의 거리, 행복의 창가마다에서는 인민이 무궁한 복락의 한반도에 서 있는것이다. 결코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차려진 복이 아니였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차려진 복이였다. 반짝이는 맑은 눈동자만 아침을 반기는 집집마다

늘물겨운 헌신에 떠받들려

아름드리거목도 자양분을 주는 뿌리가 있듯이 인민의 보금자리에는 눈물없는 들을수 없는 무수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울 일념을 안고 온 나

라도처에 인민사랑의 거창한 창조대전을 펼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몸소 오르신것인 초고층살림집들과 수없이 오 르래리신 계단들, 그 높이로 가늠해보신 부덕의 찬양이며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

라도처에 인민사랑의 거창한 창조대전을 펼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몸소 오르신것인 초고층살림집들과 수없이 오 르래리신 계단들, 그 높이로 가늠해보신 부덕의 찬양이며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



미래 과학자거리



러명거리



새 살림집들에서 복된 삶을 누려간다.



검덕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



김책시 리원군 피해지역에 일떠선 살림집들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을 밝혀주시면서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데 대해서도, 시, 군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안겨주려는것이 경애하는 그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올해 정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살림집건설계획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주시면서 무조건 당대회가 결의한대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기도 몸소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공작실장에 나오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실 자신의 드림없는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새 살림집들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 있는 산악협곡도사가 일떠서고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철야전이 벌어지고있다. 평양시 송진, 송화지구에 일떠서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매일 건설자들이 새로운 기적, 혁신을 창조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 있으며 검덕지구에서는 세상에 없는 산악협곡도사가 일떠서고 삼지연시에서는 제3단계 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는 평양시 대성구역 립중동지구에 백수십세대의 훌륭한 살림집들이 완공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달려가는 만경대를 지적에 둔 대명지구에도 또 하나의 대규모 모건설현이 펼쳐졌다. 작곡의 첫발을 박은지는 얼마 안되지만 벌써 지대정리와 살림집기초공사작업이 끝나고 기초공구리트치가 한창 진행되고있어 사람들을 또다시 격조 높이고 설레이게 하였다.

평안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은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그 자리에 높은 주택건물을 얹으면 맞은편에 있는 정권기관청사가 늘리울것같아 부지를 그대로 놔두었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주인인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기관청사가 근로자들의 살림집보다 낮은것이 옳이 아니라, 정권기관청사보다 살림집이 높으면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얼마후 그 공지에는 맞은편의 정권기관청사보다 훨씬 높은 고층살림집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사기를 지어하는 현대적인 초고층 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쓰고살고있다. 평양의 현대적인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21세기 에너지를 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일떠선 러명거리는 물론 지방도시와 농촌, 어촌과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서나 돈을 내고 국가로부터 새 살림집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자기를 사려고는 집값을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언제나 창전거리의 한 살림집을 찾았던 외국인 집값

을 모르는 집주인에게 《행복한 바보》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집값을 알려주고 간 일화도 생겨났다. 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만수대 거리를 놓고보아도 고급아파트들이 건설될 당시 외국의 언론들은 《경치좋은 이곳에는 아마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살게 될것이다.》라고 제 나름의 억측들을 내뿜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만수대거리의 고급살림집에는 로동자, 과학자, 교원들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입사하였고 철거세대들이 한세대도 빠짐없이 새 살림집

을 모르고 받는 혜택 실로 복받은 인민들이다. 집값과 집세가 하늘높을줄 모르고 오르고있는 서방사회에서라면 상상이나 할 일인가. 상가에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실업자나 집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전혀 찾아

안은 불편한 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얼마 안있어 새 집에 들게 되었는데 집값이 높고 고생이 무슨 큰것인가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관님께서만은 인민들이 겪게 될 소소한 불편도 헤아리시어 새집을 지어줄것을 당부하는 중서까지 만들어주려고 하시는데는 것이였다. 그러시기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데서 그이께서는 새집배정에서 혹시 한집이라도 빠질새라 복세동에 건설하는 살림집들은 꼭 그렇게 배정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바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라선 시피해복구전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자신께서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살림집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살림집대부를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정년 살림집을 하나 건설하여도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본사기자 리 연 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려고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정권기관청사보다 높이 솟은 살림집

모르고 받는 혜택

모르고 받는 혜택

모르고 받는 혜택

모르고 받는 혜택

모르고 받는 혜택